

실과 및 가정과 교육의 철학적, 사회적 배경 고찰과 미래 방향 탐색

박순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Philosophical and Social Backgrounds and Inquiry into New Direction of Practical Art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Park, Soon-Ja*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hilosophical and social backgrounds and inquiring into new direction of Practical Art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is done through this paper. The overall review of the related documents, records, books has been done, and research findings are presented as follows:

Thought(Educational theory and Philosophy) for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is based on Learning to Labor, Practical Science and Pragmatism. Korean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were originated in Confucianism background, which stressed the importance of different gender roles for men and women.

However, Korean Home Economics based on Home Economics Subject Matter has been developed without philosophical base unlike that of American Pragmatism and Critical Theory. Therefore, scientific recognition in a section of value recognition was separated and developed so far. Thus, we could not answer to social missions about keeping values of life corresponding with changing environment

I also observed the analysis of revision curriculum of the mentioned subject, and the changes of concepts of Work and Praxis, necessit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fixing about a basic life education and a basic life skill, and reinforcement of the function in Home. And then, new directions is proposed that the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school be reinforced for the upcoming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society(high proportion of the aged people). Because Characters on correct values of children and youths might be nurtured in home foremost.

주제어(Key Words) : 실과 및 가정과교육(Practical Art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철학적·사회적 배경(Philosophical and Social Backgrounds), 실용주의(Pragmatism), 비판이론(Critical Theory), 미래방향(New Direction)

I. 서 론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과(기술·가정) 교과와 성격, 목표를 재검토해 보는 것은 교과와 성립과 정당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의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과와 본질, 성격과 목표 진술시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철학적 배경일 것이며, 그 교과를 성립시키는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 교과가 존재하여 이수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사회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과가 변천해 온 역사와 사회적인 배경을 고찰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교과와 관련있는 철학적 이론을 노작교육론, 실학사상, 실용주의, 실천과학, 비판이론 등에서 탐색하고자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교육과정 성립 이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실과에 관한 교육론으로 노작교육론과 관련하여, 정모근(1995)은 실과교육에는 노작교육을 적용해야 하는데 노작교육으로 얻은 지식이 바로 실천적 지식(praxiological knowledge)이며, 이 실천적 지식이야말로 인간의 계발적인 측면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가 있다고 하였다. 마리엘레 자이츠 등(2001)은 발도르프교육학에서 페스타탈로치의 노작이론을 교육현장에서 실행하고, 체험학습 중심으로 그 이론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교육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의식이 강하고 창조적이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실학사상과 관련하여,李文遠(1983)은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관심사는 사회의 구제, 의식주의 해결에 있었다고 하여, 실과와의 관련성과 현재 실과 내용과 관련된 교육을 당시 제안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가정학의 원론 패러다임을 고찰한 今井光映(1998)은 Brown의 사상과 방법을 인용하면서 가정학을 실천과학으로 분류해야 하는 이유를 학문의 분류, 과학의 분류로부터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철학적 배경이 되는 프래그머티즘

과 타 경험주의 철학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박순자와 신상옥(2000)은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철학적·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고찰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유사점,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정과교육의 목표와 내용도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으로부터 의식, 주, 아동 보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영향을 받아왔음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나 실과 및 가정과에 관한 철학이나 역사, 사회적 배경을 고찰한 논문은 거의 없어(윤인경, 2001)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며, 또한 두 교과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철학적, 사회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과 및 가정과 교육의 철학적 이론과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여 두 교과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온 배경을 파악하고 교과와 변천 배경 속에서 시사점을 얻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작교육

노작교육(Learning to Labor)은 루소에서 시작하여 페스타탈로치, 프리벨, 듀이에 의해 도입된 노작교육론(송해균 외, 1998)으로 이어진다. Pestalozzi(1744)는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소질을 전면적·조화적으로 발달시키는 교육을 모색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 중에 잠재해 있는 소질은 심정(도덕심), 정신(지적), 기능(신체적·기술적)이며, 이들의 능력을 형성하는 자연에 부합하는 교육(합자연적 교육) 즉 직관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는 지식은 항상 기능을 동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기초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생활행위를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家庭教育를 중시하였다. 페스타탈로치는 인간성의 기본능력으로서 머리·마음·손의 통일을 들고, 교육은 이들 인간성의

기본능력이 전면적·조화적으로 발전하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늘날에도 교육혁명의 본질로 일컬어진다(広島教科教育研究会, 1986).

그 100년 후, Dewey(1916)는 학교에 있어서 작업의典型으로서 조리·목공·재봉의 3가지 활동을 들었다. 이들은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 「구성적인 일」인 동시에 사회적 입장에서 의식주라는 인간생활의 본래 기본적인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다. 위의 3가지 활동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적인 일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인류의 기본적인 제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듀이는 작업을 통해서 어린이의 자기표현적 구성적 충동을 해방하는 동시에 생산, 유통, 소비 등의 전형적인 사회상황에 몰두시키는 것으로 산업사회 어린이들을 방황지었다. 듀이의 영향은 미국의 교육을 변혁시켜 세계중의 신교육운동의 메카가 되었다.

2. 실학

실학(Practical Science)의 어원은 실사구시지학에서 나오는데, 實事求是는 현실적 학문을 연구, 발전시켰던 이유로 실사구시했다는 호평을 받은 데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어원을 가진 실학은 조선시대의 유교와 그 변형인 성리학이 형식, 명분으로 흘러 국민경제가 쇠퇴해가는 데 대한 냉철한 자각과 반성아래 등장한 것으로,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자생한 산물로 몇 갈래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 정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기론적 형이상학을 지양하고 자아와 현실을 자각해 민족의 실생활에 유익하고 유용한 실제 문제들을 사실에 입각해 연구함으로써 시민생활을 풍요롭게 하자는 학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류청산 외, 2002). 초기 실학자들은 성리학적 토대위에 현실주의 경제적·사회적 제도적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졌다. 실학사상의 선구자로서 유형원은 중농사상에 입각하여 토지개혁 실시와 기회균등의 구현을 주장하였다. 18세기 후반 북학파는 利用厚生의 실용적 학풍을 추구하였으며 19세기 실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학은 주로 두 유포를 형성하여 북학파는 利用厚生, 성호학파는 經世致用을 중시하였다.

실학자들의 관심은 주로 사회경제적 문제에 두었으나, 한

편으로는 민족의 전통과 현실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실학자도 있다. 김정희 등의 實事求是派는 실증적 연구 방법을 계승하면서 金石典故에 대한 학문에 주력하였다.

실학을 집대성한 茶山 정약용의 학문체계는 유형원과 이익을 잇는 실학의 증농주의적 학풍을 계승한 것이며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북학파의 기술도입론을 받아들여 집대성한 것이다. 또한 실학자들은 농공상의 생산활동을 천시한 직업관의 혁파를 주장하였으며, 생활에 관련있는 실천적 교육관을 가지고 선비도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학이 교육에 미친 영향은 경제, 역사, 지리, 과학, 교육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인권의식, 평등사상 등의 인간관에 입각하여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종래의 성리학적 교육내용에 현대적인 학문을 첨가해 폭넓은 지식을 널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교육의 기회균등과 능력에 의한 교육을 주장하였다(류청산 외, 2002).

3. 실용주의 철학

실용주의(Pragmatism)란 관념이나 사상을 행위(그리스어로 pragma)와의 관련에서 파악하는 입장으로 듀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떠한 관념이라도 그것이 유용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관념은 진리라고 말한다.

Pragmatism에서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거나 그 환경을 통제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양성해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 용구가 되는 것이야말로 眞의 인식이라고 여긴다. 즉 Pragmatism에서는 「그것은 진이므로 유용하다」라는 것과 「그것은 유용하므로 진이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점에서 Pragmatism은 과학의 인식에 있어서 다른 경험주의 철학과 크게 다르다(今井, 1998).

Pragmatism은 과학적 인식을 믿고 그것을 모범으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타 경험주의 철학과 동일하다. 그러나 타 경험주의 철학이 과학적 인식의 결과, 단지 사실이 어떻게 있을까에 대한 몰가치적인 인식만을 과학으로 하고 가치판단을 과학의 인식 영역 밖으로 추방하려는데 반해서, 프래그머티즘은 과학의 인식과 가치의 인식 사이에 본질적인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명백히 다르다.

프래그머티즘에 있어서 생활의 과학적 인식과 가치적 인

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기는 데에는 가치인식에 대한 사고방식에 변화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생활에서 떨어져 절대적인 가치가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가치인식의 사고방식은 너무 지나쳐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에 있어서 인식은 어디까지나 생활의 요구에 부응해서 생기는 것으로 단 한번에 궁극적인 목적가치를 설정해서 그것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활에 의거해서 순차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치를 실현하고, 가치를 규정하고 그것을 수단가치화해가면서 궁극적인 목적가치로 나아간다는 것이다(今井, 1998).

프래그머티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로는 귀납, 인간 경험의 중시, 자연주의적인 인간주의, 과학과 문화 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

4. 비판이론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은 19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으로부터 일어났으며 그 방법론의 기반은 헤겔의 변증법에 두고 있다.

비판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이론」을 대비시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전통이론은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모델로 하고 데카르트적으로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실 중에 볼 수 있는 법칙을 일반화하며, 수량화해서 실증주의적으로 정립화해 간다. 여기에서 전문과학은, 연구(인식)의 목적, 의미, 가치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학문적 인식의 성립근거에 대한 성찰이 없는 채로 사회의 현실사실에 대해서 법칙화하고 정립화하는 것에 과제를 한정하게 된다(今井, 1998).

비판이론은 이러한 전통이론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비판이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3자 입장에서 조망하는(실증주의적) 과제가 아니라, 「존재해야만 하는」 이념에 비추어 현실사실을 비판하는 실천으로 과제를 찾아내려고 한다. 비판이론은 주체와 객체의 분리, 사고와 실천의 분리를 거부하고, 연구의 대상은 인간의 사회적·역사적인 활동의 산물로서 기존의 사회를 변증법적인 사회인식에 기초하여 비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성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판이론은 사회의 역사적 존재이해를 넘어서 보다 좋은, 보다 인간적인 장소를 형성하기 위한 변혁을 추구한다. 이것은 현상으로서의 사회적 현실과 사회적 현실의 기본인 인간적 질(human quality)을 구별한다. 또한 비판이론은 사회적·역사적인 전체를, 세분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취급한다. 더욱이 어떤 계층의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적 현실을 자각시켜, 억압·지배로부터 해방·자유라고 하는 대중의 요구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비판이론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있어 비판적이다. 그 하나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던 사회적 압력·억압을 자각시킬 것, 다른 하나는 억압의 근원에 대한 비판과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이 두 가지 점에 비판적이다(Brown, 1985).

비판이론은 현대의 비합리와 인간억압이 탄생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형성하는 이성 그 자신에 내재하는 인간과 자연과의 「본질」에 의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경제학비판」에서 「도구적 이성비판」으로 이동해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판이론에서 사회는 인간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인간들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안목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구조와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밝혀줄 수 있다. 따라서 비판이론은 지식의 종합적,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가정학 연구에 적절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학의 통일화를 둘러싼 패러다임론의 기초로서, 가정학의 사명의 기초로서 비판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III.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철학적·사회적 배경 고찰

1. 실과교육의 철학적·사회적 배경 고찰

1) 철학적 이론 고찰과 실과의 관련성

실과교육의 근거가 되는 교육론(교육사상)과 철학으로 勞作教育論, 實學思想, 實用主義(pragmatism)를 들 수 있다. 노작교육은 실과교과가 중요시하는 '일' 혹은 근로역행의 정신과 직결되며, 실학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상으로 실과가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이므로 그 관련

성을 살피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래그머티즘은 실용성을 강조하는 실과교과의 기초이론을 제공해주고 가정과의 철학적 배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살펴보기로 한다.

(1) 노작교육

루소에서 시작하여 페스탈로치, 프리벨, 듀이 등의 노작 교육 사상가들은 공동으로 노작교육이 학생들의 知的 探究를 높은 수준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정모근, 1995). 이는 노작교육이 학교에서 전달할 교육내용을 학생들이 실제 경험과 연결시켜 주는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진다. 노작교육의 가치 및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노작교육은 신체발달과 건강유지, 지적 발달과 기술적인 능력의 향상은 물론, 성실성, 근면성의 발달과 같은 인성교육 및 사회성 발달의 효과를 갖는다. 즉 지적체가 발달한 全人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원, 1991; 김기민, 1992).

노작교육이 全人教育의 방법원리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적용시키는데 어려운 점은 과거, 유교가 지배하던 전통적 교육에서는 일의 교육적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데에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실용성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구한말에는 개화사상가들에 의해 서구의 근대적인 이론적 교과와 아울러 실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과교과와 노작교육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해보면, 실과는 실생활에 필요한 노작활동과 실천적인 학습경험을 통한 적응능력을 기르는 생활교과이고 기능교과이며 실천교과로 교과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실과는 실생활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노작의 체험을 통하여 노작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면서, 성취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며 노작의 실천으로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기르는 기초교과가 되었다.

1955년 이래 현재까지 실과교육의 목표에서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실생활에 필요한 일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기르는 일의 체험'에 관한 것과, '근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근면, 협동하는 생활태도를 기르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실과교과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개념도 이 두 항목에서 추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과교육에는 노작교육을 적용해야 하며 노작교육으로

얻은 지식이 바로 실천적 지식(praxiological knowledge)으로, 이 실천적 지식이야말로 인간의 계발적인 측면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가 있다(정모근, 1995).

이상과 같이 실과교육의 목표에서 제시한 '일의 체험', '근로의 가치 이해', '근면·협동하는 태도' 등 실과교육은 노작교육과 그 성격에서 분명히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 실학

실과교육의 사상적인 근원은 조선시대 후기 실학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실학은 자아와 현실을 자각하여 민족의 생활에 유용하고 유익한 문제들을 연구한 '實用學'이며, 그것은 實事求是를 위한 학문을 강조하였다.

실학자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를 실제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교육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實學을 집대성한 茶山의 최대 관심사는 사회의 구제-정치 경제의 개혁과 민중의 의·식·주 해결에 있었다. 또한 그는 技藝를 익혀서 제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技藝教育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 기예교육은 현실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농업, 군사, 방직, 의술, 건축 등 실업 및 과학기술교육에 힘써야 부국강병이 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실과에 관련된 내용을 記述해보면 농사짓는 「技術이 정교하면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으며, 힘을 덜 들이고도 좋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 또한 베를 짜는 기술이 정교하면 물자를 적게 들이고도 좋은 옷감을 얻을 수 있다. 표백과 색채도 기술의 개선으로 훌륭하게 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실과내용과 관련된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李文遠, 1983).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기능을 기른다는 실과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실학의 특성은 실천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생활교과 또는 실천적 행동력을 지닌 '산 유기체적 교과'(송해균 외, 1998)라는 실과교과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실과교과와 실학의 관련성을 학습 면에서 찾아보면, 실과의 학습은 교사가 행하는 교수활동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하는 학습활동에 비중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교

육의 여러 측면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실과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유능한 생활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또한 실과는 습득한 능력을 실생활에 바람직하게 구사함으로써 전인적인 인격체로서 자라나도록 하는데 필요한 교과라는 면에서 그 관련성이 있다.

(3)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실과교과를 뒷받침하는 서양의 철학사상으로 기존의 진리와 지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는 '實行的 哲學'이란 의미에서 실과와 관련있다.

또한 Pragmatism은 진보주의 교육으로 교육개혁 운동을 펼쳐 전통적인 교육에 도전하여 획일적, 억압적 교육방식에 반대하였다(Dewey, 1916; 박철규, 1999. 재인용). 진보주의에서는 아동의 경험을 매우 중시하면서 종래의 주지주의적인 이론교육보다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게 하였고, 이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력을 중시하여 아동의 사고활동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실과교과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Pragmatism과 실과의 관련성은 아동의 경험을 중시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얻게 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력을 중시하여 아동의 사고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즉, 실천성을 부여하는 실용교과라는 측면,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의 강조, 경험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강조한 점에서 상호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학과 서양의 Pragmatism은 실용과 실천을 모두 중시하는 사상들로 그 개념상에서 매우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송해균 외, 1998). 두 사상의 동질성은 첫째, 인간의 실생활 즉 경제 사회적인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이로써 實事를 대상으로 삼았고, 둘째, 공리공론적인 형이상학적 관념론을 배척하고 경험주의에 입각하며, 셋째, 현실의 여건과 환경, 상황을 중시하고, 넷째, 實用과 實益을 중시한다는 데에 있다.

上記의 두 사상이 교육에 미친 영향은, 실학이 교육제도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Pragmatism은 진보주의 교육사조를 만들어 아동중심 교육, 경험중심, 전인교육,

협동성을 강조하였다. 두 사상은 실과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실학사상은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을 강조하고, 생활에 관련된 각 방면의 내용들에 관심을 갖는 특성이 있으며, Pragmatism은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경험중심 교육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실과교과의 성격과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인다(송해균 외, 1998).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은, 교육과정 문서상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구성주의 관점으로 보는 연구들이 있다. 이화진(1999)은 현행 교육과정은 부분적으로 교과 간 통합과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한 접근에서 구성주의 철학이 반영되고 있음을 밝혔고, 목영해(2003)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 '정보화시대 교육'을 지향하여 구성주의가 7차 교육과정의 인식론적 근거임을 내세우고 있다. 양정혜(2006)는 실과교과의 내용선정에 있어 중요한 철학적 배경은 구성주의이며, 교육내용체계가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자기개발이 가능하며, 앞으로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구성주의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경험과 실제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여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실과의 성격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배경 고찰

실과교육의 시작은 1945년 광복 후로 미군정 당국에 의해 교과목으로 편제된 도화, 공작, 조리, 재봉, 가사에서 비롯되어, 1954년 교육부령 공포로 5개 과목이 '실과'로 통합되어 현재와 같은 교과로 확정되었다(강향녀, 1990; 송해균 외, 1998).

1955년 우리나라 독자적인 교육과정이 제정되면서 실과가 정식으로 교육과정상의 과목으로 제시되었다. 1960년대 실과교육은, 전후 경제사정이 어려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았으므로 직업교육에 치중하였으며 그 시수도 주 3시간 이상을 두었다. 1970년대의 실과교육의 성격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로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중학교 무시험 입학으로 진학률이 높아져 직업교육의 성격보다는 교양교육으로서 부각되었다. 1980년대는 고도산업사회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시기에는 초등학교

교 졸업자 전원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실과에서 직업교육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실과는 가정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로 전환되면서 가정영역이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급격한 시대적·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정의 위기에 대비하고, 남녀 공동으로 하는 가정생활을 잘 영위해나가기 위하여 가정과와 기술과는 남녀공수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민공통 기본 교과로 초등과 중등의 교과 명칭은 다르나 하나의 연계성을 가진 교과이며 5-10학년에서 남녀공수로 시행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다양한 가치관 아래, 창의력있는 사람 육성, 가치 창조,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교육부, 1998).

급변하는 사회 및 가족 구조 속에서 요청되는 교육의 목표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신장과 실생활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생활인을 기르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과교육은 개인과 가정, 산업생활의 이해와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그 목표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도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으로 교과의 목표도 개정되어 '나의 삶, 가정생활, 산업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산업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여 현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로 하고, 하위목표로 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 아래 내용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과교육의 철학적·사회적 배경 고찰

우리나라의 가정과교육은 그 모체가 되는 가정학의 배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두 학문은 거의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정과의 교과이론이 가정학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며(藤枝 외, 1989), 따라서 가정과교육과 가정학을 동일시하여 철학적 배경을 논술하고자 한다.

1) 철학적 이론 고찰과 가정과의 관련성

(1) 유교사상과 초기 가정(교육)학

우리나라의 가정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교적 사고방식에 의해 현모양처, 가부장주의의 윤리와 가정기술로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긴 기간 동안 여자교육의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사고방식에 의해 여성이 학문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남존여비 사상이 해방 후 가정과 학교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그 결과 약 40여년 동안 가정과는 여자만의 교과라는 사회적 통념을 형성해왔다(박순자, 2000). 그러므로 초기 우리나라 가정과교육의 철학적 배경은 유교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서양의 학문이 교육과정의 배경을 이루면서 가정과교육도 서양의 철학과 미국 가정학의 영향을 받아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학은 실천과학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 되었다(今井, 1998).

과거 가정학은 서비스 사명을 가진 전문분야(profession)로 언급되어졌다(McCullers, 1984). 이런 관점에서 이론은 그 중심적 사명에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가정학 정립의 이론 결핍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과학으로서의 가정학 연구방법에까지 잘못을 초래하게 되었다. 과거의 가정학 연구에 있어서 이론정립과 과학적인 연구방법의 적용이 결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이론의 진보가 느린 것은 가정학이 유용한 실천에 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론은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과, 가정학의 역사가 짧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정덕희, 1988). 환언하면, 과거 가정학은 통일된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성립원리,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공통의 철학적 성찰이 충분치 못하고 공통된 방법론의 모델이 확립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Baldwin, 1991).

(2) Pragmatism

생활의 목적과 가정학의 목적이 대체로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학문으로서 가정학의 이론 정립에, 원론들의 구성에 혼란을 초래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정

학의 입장은 학문의 입장으로서 생활존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학자적인 입장인데 반해, 생활의 입장은 생활을 실천적으로 경영해 가는 생활자의 입장이다.

또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수학과 통계학으로 무장하는 것이 과학으로 여겨져 그 때문에 편이상 연구대상을 세분화하거나, 경험과학적으로 불가치적인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취해왔으나, 실천과학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목적의식 구성으로 전체적인(holistic) 생활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가치 등을 감안한 메타이론과, 비판과학적·해석과학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한 가정(교육)학에는 문제라는 것이다(Baldwin, 1991).

이리하여 실과의 가정영역이나 가정과는 생활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가정학을 모학문으로 하고 있는 과학의 인식 그 이상의 가치판단적인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학문으로서의 가정학에는 과학적 요구와 가치판단적 요구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을 통일해 가도록 요구된다. 이 문제는 Pragmatism에 의해 하나의 해결을 해왔다.

Pragmatism의 입장에 선다면, 생활과학의 인식도 생활이 미래의 행동에 도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생활이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생활의 가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양성해 가는 데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취해야만 하는가가 당연히 포함된다.

가정학은 한편으로는 생활과 그 입장을 달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의 입장에 즉시 응하고, 생활의 입장에 내재적이면서 또한 초월적이며, 초월적이면서 또한 내재적이라는 선택원리의 문제해결 방식에 의해(今井, 1998), 한편으로는 가정학이 생활의 실천의 기초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의 실천에 의해 가정학의 실증성이 검토된다는 피드백 관계의 과정으로 가정학과 생활실천은 발전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비판이론

블드윈(1991)은 전술한 학문으로서의 부족한 그 철학적

성찰을 브라운(1985)에 의거하여, 가정학계 학문적 통일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방법적 입장인 「비판이론」에서 구하고 있다.

Baldwin(1991)은 가정학의 통일화 패러다임의 이론적 기초로서 비판이론의 필요성의 이유를 다음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비판이론은 실증주의 등의 폐쇄적인 사상체계에 반대하는 반성적, 자기비판적 이론이다. 이것은 불가치적인 지식 또는 「중립적」인 연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실증주의과학에 의한 배타적인 유효성의 주장을 부정한다. 즉 하버마스¹⁾가 분류한 3유형의 과학 중 비판과학에 입각하여, 포괄적인 지식론을 포함하는 비판이론은 가족의 복잡한 문제에 합리적으로 몰두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둘째, 비판이론은 사회의 구성원의 내부적 관점과 동시에 관찰자로서의 외부적 관점으로부터 사회를 역사적으로 동시에 전체론적(holistic)으로 봄으로써 복잡한 사회구조와 과정 및 인간관계에 서광을 비춘다. 사회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인식됨과 동시에 인간에 의해 사고되어지는 대상이다.

셋째, 비판이론은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되는 신념과 개념을, 사회의 필수조건으로서 가정하고 있다. 신념과 개념은 제도적으로 왜곡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으나 인간은 비판적 성찰을 하고,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이러한 변혁에 의해 가정학의 사명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의 의미가 명확해짐과 동시에, 가족을 발전시키는 올바른 민주적인 사회가, 가정학의 실천에 의해 촉진되기 위하여 비판이론이 가정학에 있어서 불가결하게 된다.

넷째, 비판이론은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문제의 기본 원인과 그 인간생활에의 충돌(impact)을 탐구한다. 그 예로서는 전략적(기술적) 행위에 의해 치환되어 왜곡되어진 의사소통 행위에 의한 사회의 機能不全, 인간생활의 도덕적·미적 측면을 불리하게 하는 형태로, 과학기술을 강조함으로써 인한 서양문화의 불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전문화의 진전과

1) Jürgen Habermas, 브라운이 높이 평가하고 그 저서의 Vol. II에서 13군데, Vol. III에서 24군데에서 인용하고 있는 철학자, 사회학자. 그는 과학을 인간의 관심에 기초하여 3가지 범주(category)로 분류하고 있다. 즉, 노동(일)을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술적 관심에서 유래하는 「경험·분석과학」,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의한 이해와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기초로 하는 「역사·해석과학」, 그리고 권력 행사의 결과 왜곡된 커뮤니케이션을 해방하는 개방적인 관심을 기초로 하는 「비판과학」의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今井, 1998: 179-180)

「전문가의 격리」의 결과로서의 「의식의 단편화」 및 이것들이 사회 또는 그 문제의 전체적인 개념을 얻는 것을 한층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이론에 의해, 지식의 탐구에 있어서 새로운 감성과, 인간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제공되어 이론과 실천이 통합된다. 가정학의 새로운 통일화를 추구하는 페러다임론을 전개하고 있는 Baldwin(1991)의 記述은 가정학에 대한 것이지만 가정학의 통일화의 페러다임의 필요성을 자각시켜 준다.

하버마스(1984)는 가정학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환경으로서의 물적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인간과의 상호작용, 인간과 인간과의(인간으로서의 가족·개인의) 상호작용이며, 그의 생활세계의 개념은 가정학에 대한 실증주의의 한계와 함께, 이것을 자각시켜주는 것이다(今井, 1998). 하버마스는 생활세계(life world)를 의사소통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평으로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의 의사소통행위의 키워드는 이해(perceiving)이다(河上 외, 1986). 그에 있어서 생활세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행위로서의 의사소통 행위가 성립하는 장면이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본원적인 장소 즉 가정이다.

총괄적으로 20세기 초에 절정을 이루던 과학 자체와 지식 자체를 인간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봉이 인간생활에 많은 병폐를 낳았다는 것이 비판이론가들에 의해 비평되었고, Habermas(1971)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발생될 부정적 병폐를 이론으로 예견하였다. 그의 이론은 가정학의 중심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므로 가정학계 특히 가정교육학계의 발달방향을 지향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유태명 외, 2004).

가정과교육의 최근 동향은 기술적 성향에서 인간의 감정과 자유, 도덕성, 정의, 배려 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미국가정학회 교사교육 분과에서 발간한 가정과교육 연감과 미국 국가기준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천 비판 가정과 페러다임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고, 가정과교육의 독자적인 중심을 가족, 일, 그들의 상호관련성에 두고 있다(유태명 외, 2004). 그러므로 가정과교육의 사명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족생활, 일의 생활, 가정과와 관련된 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 전문가로서의 가정전공자를 육성해 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사회적 배경 고찰

우리나라 가정과의 사회적 통념형성에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사고방식과 남존여비 사상이 큰 역할을 하였고, 해방 후 가정과 학교교육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 가정과는 긴 기간 동안 여자만의 교과라는 사회적 통념을 형성해왔다.

우리나라의 가정과의 학교교육 이론은 개화기 이래 사실상 미국의 영향을 받아왔는데 미국의 가정학자들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학도 바뀌어야 함을 일찍이 지적하였다(Lippeat & Brown, 1961, 松山, 1971. 재인용).

우리나라의 가정과교육은 해방이 되면서 초등에서는 '실과' 교과 속에 가정영역으로 포함되었고, 중등에서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로 정착하여 1990년대 초까지 男女別學으로 계속되었다. 이는 남녀역할을 구분해온 유교적 사고방식이 학교교육의 교과목 이수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초등 실과는 중학교 진학률이 약 100%에 달함에 따라 직업교육의 성격보다는 교양교육으로서의 교육의 가치를 확고히 하게 되어 가정영역이 강화되었다.

1990년 중반에 와서 드디어 중학교 가정과는 남녀공수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선진국의 동향도 고려하여 학생들이 앞으로 남녀 모두 가족을 형성하여 함께 가정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인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즉 고도산업사회를 맞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여성가족부의 출현 등으로 양성평등 사회관과 그에 부응한 교육으로 남녀의 직업관과 역할도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대 현재 실과(기술·가정)교과는 남녀공수로 시행되고 있으나 내용구성 상에서 남녀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학생의 성차에 따른 흥미 및 관심과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한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소자녀화로 개인주의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즉 가정, 가족관의 변화로 혈연관계의 가족관계가 희박해져가고, 다양한 가정형태가 출현함과 동시에 과학(의학)기술의 발달로 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른 노동

력의 감소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 사회적으로는 세대간 갈등이 예측되며, 이것이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가정과에서의 교육은 그 변화에 부응하여, 가족은 독립적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이해과정은 단순히 과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철학적·역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IV.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미래 방향 탐색

앞서 우리나라 실과와 가정과가 성립된 배경과 기초이론을 철학적, 사회적 배경에서 고찰함으로써, 본 교과과정도 탐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본 교과과제는 점차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시기에 행해졌으므로 더욱이 교과과제의 배경을 고찰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교과과제의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먼저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관하여 개정 전후를 비교분석한 후에 미래방향을 탐색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학교교육에서 가정교과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1-8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5.5%에 불과하였다. 또한 교과내용의 요구조사에서는 가족과 소비, 진로내용이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박미숙, 신효식, 2006). 위와 같이, 좋은 교육의 공급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가정과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은 교육과정 개정시기에 적절한 연구내용이라 생각되어진다.

1.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

2007년 교육과정의 개정은 수시 부분개정이므로 제7차 교육과정의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 변화하는 사회,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본 교육과정을 실시해 본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재조정, 보완되었다. 또한 실과, 가정과, 기술과 교육의 체계성

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보강하고 수준별 보조교재를 제작하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특히 초등 가정영역에서 살펴보면, 개정 전 가족생활과, 기능 편중의 의생활 및 식생활 중심이었던 내용이, 개정 후에는 여러 단원에 분산되어 있던 주, 소비생활 내용을 주생활, 소비생활 영역으로 재구성, 강화함으로써, 영역별 균형과 중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영역 중에서도 의생활 영역에서 대폭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 전 의생활 내용은 5, 6학년 모두 바느질, 뜨개질 등 기능만으로 구성되어 그 이전 교육과정에도 있었던 의생활 기초이론교육이 빠져 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와 신체위생을 고려하여 5학년에서는 자신의 의생활 관리 능력이 강조되고, 의생활 기초이론이 추가되었으며, 6학년에서는 기능 내용으로 재봉틀, 뜨개질, 수예 등 다양한 바느질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 초등 실과 교육과정의 개정 전과 후의 비교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방법, 평가 등은 실제로 그 양적, 질적으로 중요성이 내용에 못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정 개정 시 주목받은 것은 내용이었으므로(전세경, 2006),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전과 후의 실과 교육과정(교육부, 2007)을 비교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한 내용체계의 대영역 분류에서만 보아도 개정 후에는 가정분야와 기술분야로 양분되어 가정이 1/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단원과 관련된 특징과 주요사항은 표의 비교란에서 분석하였다.

2) 중등 가정과 교육과정의 개정 전과 후의 비교

<표 2>에는 중등 기술·가정과 내용체계를 가정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가정생활' 영역이 독립적 대영역으로 편제되어 있어 가정과 기술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개정 전 중등의 가정분야의 의생활 내용은 8학년에만

<표 1> 실과(가정영역)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내용체계 비교

영역 및 학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초, 중등의 연계 강화
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의 중요성 ·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와 역할 · 생활계획과 실천 ○아동의 영양과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영양과 식사 · 조리기구 다루기 · 간단한 조리하기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킬자수 · 뜨개질 · 손바느질 ○용돈 관리하기 ○생활환경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과 옷장 정리하기 · 청소와 쓰레기 처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성장과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가족 · 가정의 일과 가족원의 역할 ○나의 영양과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과 식품 · 간단한 조리 ○옷 입기와 관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생활과 옷차림 · 나의 옷 관리 ○쾌적한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정돈과 청소 ·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p>*'생활계획과 실천'은 시간관리로 표현하여 6학년 '생활자원과 소비'로 이동함.</p> <p>*손바느질은 6학년으로 이동, 스킬자수는 삭제함.</p> <p>*신체발달과 위생에 따른 자신의 의생활 관리 능력 강조, 옷장 정리하기 내용을 이동하여 포함시킴, 의생활 기초이론 내용을 편제함.</p> <p>*'용돈 관리하기'는 '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에 포함시켜 6학년 '생활자원과 소비'단원에 편제함.</p> <p>*'생활자원 재활용하기'를 이동하여 포함.</p> <p>*중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주생활환경의 개념으로 접근.</p>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직업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하는 일 · 직업의 세계와 진로계획 ○간단한 음식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고르기와 다루기 · 밥과 빵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재봉틀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박기 ·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자원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자원의 이용과 절약 · 생활용품 재활용하기 ○집안환경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환경 가꾸기 · 나무심기와 손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음식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먹거리의 마련 · 음식 만들기 · 전통 음식 만들기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 ·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 ○생활자원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자원의 이용과 관리 · 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 	<p>*'식품 고르기와 다루기'를 건강한 먹거리의 마련'으로 변경</p> <p>*'밥과 빵을 이용한~'을 '음식 만들기'의 포괄적 용어와 개념으로 수정</p> <p>*'재봉틀 다루기' 단독단원을 바느질 단원에 통합</p> <p>*바느질 도구로 대바늘, 코바늘, 재봉틀, 수예 바늘 등 다양한 바느질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p> <p>*자원과 소비단원 합하여 구성</p> <p>*시간(인적 자원)과 용돈(물적 자원)을 대표적으로 하여 자원의 관리 강조</p> <p>*'생활용품 재활용하기' 5학년으로 이동.</p> <p>*'실내 환경 가꾸기' 수정하여 5학년으로 이동→'쾌적한 주거환경'에 포함시킴</p> <p>*'나무심기와 손질하기' 삭제함.</p>

〈표 2〉 기술·가정(가정과)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내용체계 비교

영역 및 학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초, 중등의 연계 강화
7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와 가족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특성 · 성과 이성 교제 · 나와 가족 관계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영양 · 청소년의 식사 · 조리의 기초와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발달 · 청소년의 성과 이성 교제 · 청소년의 자기 관리 ○청소년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 옷차림과 자기표현 · 청소년의 소비생활 	*개정 전 식생활은 7, 9학년에, 의생활은 8학년에만 편중되어 있었던 것이 개정 후에는 식·의생활 모두 7, 8학년의 2개 학년에 고루 편제됨
8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복의 마련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 의복의 마련계획과 구입 · 옷 만들기과 재활용 · 옷의 손질과 보관 ○자원의 관리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활용과 환경 · 청소년의 일과 시간 · 청소년과 소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가족 · 가족 관계 ○가족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과 식품 선택 · 의복의 선택과 관리 · 주거와 거주 환경 ○가정생활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준비와 예절 · 옷 만들기 고쳐 입기 · 주거공간 활용 	*식·의·주생활이 2개의 중단원에 편제되어 있음 *가족을 핵으로 하여 내용이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음 *10학년에 편제되어 있던 '가정생활의 실제'가 개정 후 8학년에 편제되었고, 내용이 현실 생활적인 것으로 구성됨
9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의 식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과 식품의 선택 · 식사준비와 평가 · 식사예절 ○가족생활과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간의 활용 · 실내환경과 설비 · 주택의 유지와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설계의 실제 · 가정생활과 직업생활 ○가정생활과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단계와 가족 복지 · 가족복지 서비스 	*개정 전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에 편제되어 있던 '진로'내용이 생애단계와 연관지어 가정생활 대영역의 9학년 내용으로 편제됨 *가정·가족복지 내용이 새롭게 편제됨
10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생활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문화의 변화 · 가족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 결혼과 육아 ○가정생활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와 행사의 계획과 준비 ·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의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선택과 결혼 · 부모됨과 임신·출산 · 가족 돌보기 ○가정생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소비생활 문화 · 식·의·주생활 문화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 명칭을 '미래의 가족생활'로 변경하여, 가정생활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더 구체화하여 편제함 *개정 전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에 편제되었던 가정생활문화를 독립단원으로 편성하여 가족소비생활, 식의주 생활문화로 개편함

편제되어 있던 것이 개정 후에는 식생활과 함께 7, 8학년의 2개 학년에 고루 편제되어 있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

육을 하기에는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특히 8학년에는 2개의 중단원에 식·의·주생활 내용이 배정되어 있어 이른

과 실습(실기)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가정과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 '일'과 '실천'에 관한 개념의 변화

실과와 가정과는 일반적으로 실천교과, 생활교과로 일컬어지고 있어, 노작, 일, 실천이란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변천과 현대적 의미를 고찰해보는 것은 앞서 고찰한 철학적 배경과 연결지어 미래방향을 탐색하는데 매개가 될 것이다.

'일'에 대한 개념도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노예와 자유민이라는 계층 사회의 구조 때문에 생활필수품의 생산을 노예의 노동에 맡겼으므로 식품 등의 소비재는 노예에 의해 생산되었다. 기술과 같이 노동에 관련되는 「실천²⁾」은 일반적으로 민주적 권리를 갖는 자유민이 관계해야 할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크리스토프는 신 앞의 인간의 평등을 구사하며, 노예제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노예와의 관계로 비하되었던 「실천」이 천하게 여겨졌던 풍토는 사라졌다. 기독교적 사상에 입각하여 정치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행위로서의 「하는 것」과 「물건을 만드는 것」이 혼동되어 일(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사회적 요구간의 끊임없는 역동적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중세에는 수도원에서 생활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일)'을 수도승의 최고 의무로 규정하여 고대의 노동(일) 멸시 풍조를 교정하였으며 일(일)에 대한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근세에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루소, 페스탈로치, 프뢰벨이 '노작(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는 개척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한 미국인에게 진보의 개념으로 해석되었는데, 즉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발전을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다.

현대의 '실천'의 의미를 해석한 가다머(Gadamer, 1988: 원신에, 1996. 재인용)는 '실천'의 개념을 해석학적 이해를

통한 부정과 내적 자기반성의 역동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천'이란 우리가 경험하고 믿었던 사실이나 믿음에 대한 부정, 개방된 언어를 통한 이해에서 표출된다는 것이다. 가다머는 앞 또는 지식이란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이고, 그 실천은 공동체의 연대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길이라고 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은 여가의 개념을 고려한 인간적 조건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인도하는 일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양적인 삶의 휴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의 개념이 양적인 여가를 확보하는 '생활의 질'과 '인간적인 삶'의 기회를 증대하려는 존엄성의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최영진, 류청산, 1996).

미래의 일은 인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자아실현의 방법과 수단으로 치환될 것이며 신체적인 노작(일)보다는 정신적인 노작(일)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일, 실천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실과 및 가정 교과도 직업교육적 측면보다 더욱 교양교육적 측면이 강조될 전망이다.

3. 기본생활 교육 및 기초생활 기술 정착의 필요성

슈타이너는, 인간에 적합한 교육학은 사고와 감정, 의지를 다시 결합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마리엘레 자이츠 외, 2001). 이는 '머리와 가슴, 손'을 동일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페스탈로치의 전통과 상통하며, 본문의 노작교육론, 실학, 실용주의 철학과 관련된다. 눈과 귀로 인지하고 손과 발, 그리고 자기의 육체와 감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발도르프교육이 실과 및 가정과의 기본생활교육을 뒷받침한다.

石川(1999)은 가정과교육의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가정과는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만의 이른바 「座學」이 아니며, 신체를 움직여서 실습하고 체득하는 실천적인 학문이다」라는 특징을 살릴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생활교과로서의 가정과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체험(실

2) 생활양식으로서 praxis는 생활의 도야와 신중한 판단에서 성립했다. 고대 그리스 전통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이란 인간의 상호작용 및 선의 지향에 관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인은 생활필수품의 생산을 노예의 노동에 맡겨, 유한계급의 다른 활동과 구별했다. 후자의 활동은 3개 범주의 실천으로 분류되었다. 앎을 위한 이론화 또는 고찰, 사회적 존재 또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도덕적 실천(praxis), 및 실천 또는 유용한 공예품의 숙련에 의한 생산 혹은 특정의 결과(공예품·예술품 등)의 생산으로서의 poiesis 또는 techne이 그것이다(今井, 1998: 68)

습)을 통해 기본생활 능력과 기초생활 기술을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전문화시대로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생활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리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상을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명시하여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공헌할 수 있는 주 교과가 실과 및 가정과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가정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

인간의 기본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양식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가치의식까지도 대부분 가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가정은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변화가 극심할수록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적응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개인적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의 소중함은 더욱 의미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신상옥, 2004).

오늘날 가정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변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이 변화되고 있다. 가정의 기능으로서 소비, 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의식주에 대한 기본 능력 습득, 문제해결을 통한 노동과 근면의 가치 인식, 생활자원의 실태와 현명한 소비생활, 남녀의 역할관 변화에 대한 지식과 가사 기능의 습득 등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숙한 사람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차원에서 동시에 길러져야 하지만, 특히 가정 내에서의 기초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가정생활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과에서 미래의 부모가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숙한 부모됨의 자질을 갖추도록 준비시킴으로써 미래에 바르고 유능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5. 가정과가 해결해야 할 과제 및 나아갈 방향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그 교과와 철학적,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는 연구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와 목표를 재검토하고, 과거 문제시되었던 가정(교육)학의 과학의 인식만이 아니라, 가치의 인식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가정과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성평등 문화와 가정 내 역할 및 가사노동 분담 등으로 남녀가 함께 하는 가정생활에 중점을 둔 인간의 생활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영위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가정교과 내용에 노인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내용으로 의생활과 주생활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영역에서는 출산, 육아에 관련된 내용, 가족에 등의 내용을 강화하여 인간, 즉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일깨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정과교육의 과제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생활의 학문으로 남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내용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성별에 따른 선택 영역과 필수영역을 편제하여 학습자를 배려한 교육을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하나의 과학(학문)으로서의 독자적인 정립을 이루고 오늘날의 가정과 사회문제 해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가정학은 목적을 규정지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족이나 개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즉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부과하는 목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증과학에서 얻어진 성과·지식을 심미나 철학 등으로 해석해 가는 것을 요구한다. 가정교육학은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교육학³⁾으로서 현대의 위태로운 가정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일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하여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철

3) 今井(1998)는 가족과 개인이,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 치유하는 것, 생명·안전·건강·장조·평등 등 생활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고 생활의 복지(welfare)를 향상시켜 자기실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영혼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학(마이엘레 자이즈 외, 2001: 135)

학적 이론과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고 본 교과교육의 미래의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실과교육의 근거가 되는 교육론(교육사상)과 철학으로는 노작교육론, 실학사상과 실용주의(pragmatism)를 들 수 있고, 가정과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우리나라 사상으로는 유교사상, 철학으로는 미국 가정학의 근거가 된 초기 Pragmatism과 이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비판이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법 이전의 가정생활에 관한 교육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여자가 교육받는 것을 꺼려하였고, 초기 학교교육에서도 가정과는 여자만의 교과라는 사회적 통념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성립 이후 학교의 가정과교육은 점차 미국 가정학의 영향을 받아 이론도 미국의 가정학에 기반을 두어 발전해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가정학은 미국과 다르게 Pragmatism과 비판이론 등의 철학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과학의 인식과 가치의 인식이 유리되어 과학(학문)으로서는 체계를 정비하여 발전해왔으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생활의 가치를 지킨다는 사회적인 사명에 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학문적인 과학적 요구와 가치판단적인 요구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답을 철학에서 찾아 정립해야 할 시기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이 문제를 비판이론에 의거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가정학을 Trans-Discipline의 개념으로 통일화를 시도하는 동향도 있다.

미래 방향에 대한 탐색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분석, 일과 실천의 개념 변화, 기본생활교육 및 기초생활기술의 정착을 위한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필요성, 가정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가정과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가정과의 사회적 배경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성평등 문화와 가정 내 역할 및 가사노동 분담 등으로 남녀가 함께 하는 가정생활에 중점을 둔 인간의 생활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영위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과의 내용도 남녀학생 모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과와 가정과의 발전은 학생들의 발달과 교과의 학문

적 입지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향너 (1990).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변천과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199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별책 10].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
- 김기민 (1992). 노작교육의 성격과 가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청산 외 4인 (2002). 실과교육학원론. 도서출판 엘리트.
- 목영해 (2003). 구성주의와 제7차 교육과정의 관련성 연구. 교육철학, 29, 27-43.
- 박미숙, 신효식 (2006). 중학교 가정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22.
- 박순자 (2000).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순자, 신상욱 (2000)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기술·가정과 교육의 역사적 변천 비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65-76.
- 송해균 외 3인 (1998). 초등실과교육학. 교육과학사.
- 신상욱 (2004). 루소의 『에밀』에 나타난 교육사상과 현대가정의 자녀교육.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제20호, 1-25.
- 양정혜 (2006). 실과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1), 115-126.
- 유태영 외 4인 (2004). 실천적 가정과 수업 I. 신광출판사.
- 윤인경 (2001). 한국 가정과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2), 73-84.
- 李文遠 (1983). 한국의 전통교육사상-실학사상의 현대교육적 의미 -. 정신문화연구원, 153-216.
- 이재원 (1991). 노작의 의의와 그 교육적 가치에 관한 소고 대한 공업교육학회지, 16(1), 1-9.
- 이화진 (1999). 구성주의와 교육과정 구성. 초등교과교육연구, 2, 35-61.

- 전세경 (2006). 실과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실과교과의 본질과 현상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2), 195-218.
- 정덕희 (1988). 家政學 過去 現在 未來와 家政學의 課題.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2집, 155-166.
- 정모근 (1995). 노작교육의 원리와 교육적 가치.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제6집, 3-12, 205-229.
- 최영진, 류청산 (1996). 21세기를 대비한 초등 실과교육의 최근 연구동향. 실과교육연구 제9집.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 마리엘레 자이즈, 우르술라 할바흐 저, 이명환, 광노의 역(2001). 몬테소리교육학과 발도르프교육학. 밝은누리.
- Baldwin, E. E. (1984). The nature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The Oregon State University.
- Baldwin, E. E. (1991). The Home Economics Movement: A "New Integrative Paradigm". Journal of Home Economics, 84(1), 42-49.
- Brown M. M. (1985). Philosophical Studies of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Vol. II. Michigan State University.
- Dewey, J. (1916). Democracy &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 곽철규 (1999). 듀이 철학과 교육. 지식사회. 재인용.
- Gadamer H. G. (1988). Foundation of a Theory of Hermeneutical Experience. Truth and Method. New York: Crossroad.
- 원신애 (1996). Gadamer의 해석학적 이해와 실천 개념의 교육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원우총론, 14, 194-211. 재인용.
- Habermas (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lated by J. Shapiro. Beacon Press.
- Habermas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McCarthy. Beacon Press.
- Lippeat, Brown (1961). (松山美保子, 1971 재인용). 家政學의 焦点と将来への展望. 家政教育社
- McCullers, J. C. (1984, June). "The Role Theory in Research Implication for 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4), 534.
- Pestalozzi, 長田新 訳(1974). ゲストルト兒童教授法・ペスタロチ全集 第8巻. 平凡社
- 今井光映 (1998). 生活・家政系學の原論パラダイム. 家政教育社
- 広島教科教育研究会(1986). 教科教育學II. 建帛社.
- 石川 実 (1999). 日本 家政科教育の現況と發展方向.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초청강연자료, 1-7.
- 藤枝恵子, 内藤, 山下, 西村 (1989). 小學校家庭科教育法. 家庭教育社
- 河上倫逸, 徳永恂 外 (1986). コミュニケーション的的行爲論, 中. 未來社.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하여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철학적 이론과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고 본 교과교육의 미래 방향을 탐색하였다.

우리나라의 실과교육의 근거가 되는 교육론(교육사상)과 철학으로는 노작교육론, 실학사상 및 실용주의(pragmatism)를 들 수 있고, 가정과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우리나라 사상으로는 유교사상, 철학으로는 Pragmatism과 비판이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법 이전의 가정생활에 관한 교육은 주로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자가 교육받는 것을 꺼려하였고, 과거 학교교육에서도 가정과는 여자만의 교과라는 사회적 통념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성립 이후는 점차 미국 가정학의 영향을 받아 이론도 미국의 가정학에 기초하여 발전해왔다. 그러나 가정과의 모체가 되는 우리나라의 가정학은 미국과 다르게 Pragmatism과 비판이론과 같은 철학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과학의 인식과 가치의 인식이 유리되어 학문으로서는 체제를 정비하여 발전해왔으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생활의 가치를 지킨다는 사회적인 사명에 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최근 이 문제를 가정교육학에서는 비판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부분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경험과 실제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함으로써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과 및 가정과의 성격과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미래 방향에 관한 탐색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분석, 일과 실천의 개념 변화, 기본생활교육 및 기초생활기술의 정착을 위한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필요성, 가정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학교교육에서 가정생활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교과인 가정과의 역할은, 미래 저출산, 고령사회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논문접수일자: 2007년 1월 16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1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3월 21일